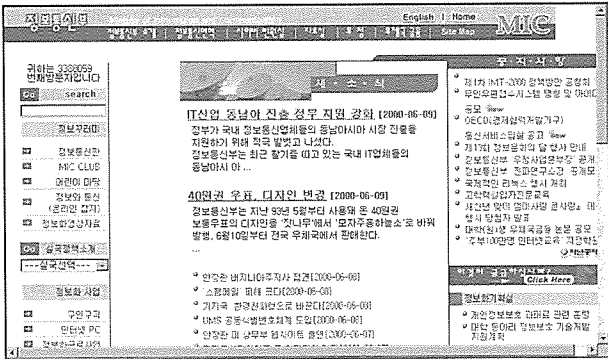


정통부, 만14세 미만 개인정보 부모동의 없이 수집 못한다



6월 1일부터 통신,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들이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개인 정보 가운데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상, 출신지, 본적지, 정치적 성향, 성생활 등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한국통신 데이콤 등 전기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업자, 인터넷방송사, 포털사이트 운영자 등이 모두 포함되며 서비스제공자가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모 등 법정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이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시 선택항목을 기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정통부는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각 조항에 대한 해설 자료를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www.cyberprivacy.or.kr), 한국정보보호센터(02-3488-4111)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23)에서 배포하고 있다. 서비스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최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터넷폰 끊어지면 요금 배상

앞으로 전화선을 이용해 무료 인터넷전화를 걸다가 전화가 끊어질 경우 인터넷폰 서비스업체가 이용자에게 통화시간에 해당하는 시내전화요금을 배상해야 한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새롭기기술의 무료 인터넷전화 서비스와 관련, 이같이 판정했다. 통신위는 전화선으로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전화가 끊어지더라도 소비자가 통화시간에 해당하는 시내전화요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요금은 무료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이얼 패드와 같은 유료 인터넷전화는 '무료'라 해도 이용자가 시내전화요금은 내도록 돼있다. 통신위는 또 이용약관에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조항을 마련하라고 새롭기기술측에 명령했다.

이에 따라 새롭기기술을 비롯한 무료 인터넷폰 서비스업체들은 전화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또 전화회선을 이용해 무료 국제전화와 시외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가 불량통화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한다.

통신위는 또 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무료 인터넷전화서비스를 개시한 새롭기기술에 대해 과징금 3백만원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외국업체와 협력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전화에 대해서는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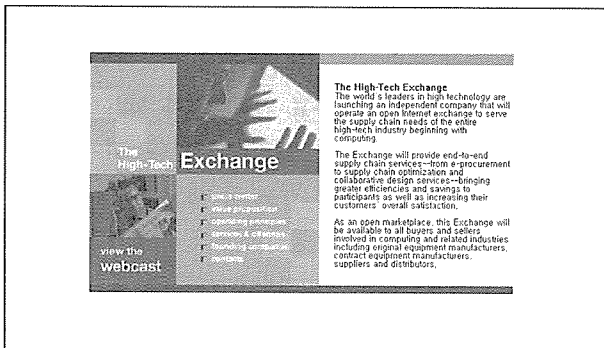
호주 인터넷 업체 세계 최초 범죄정보 제공

호주 멜버른 소재 인터넷 업체가 개인의 범죄경력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해 6달러만 내면 의심스런 이웃이나 애인의 과거 범죄경력을 소상히 확인할 수 있다. 크라임넷(Crime Net)이라는 이름의 이 업체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州)의 주도인 퍼스에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만을

초회대상으로 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도 이용자들이 폭주해 한때 시간당 접속건수가 5천건을 넘었다. 그러나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자료는 유죄판결을 받은 4천여명의 전과자의 범행내용과 이름 정도에 불과해 이 업체는 자료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이웃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며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세계 최대 규모 B2B 전자상거래 벤처 설립



삼성전자와 HP, NEC, 히타치, 인피니온, 게이트웨이 등 반도체 및 컴퓨터, 전자 등에서 선두업체인 12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B2B(기업간 거래) 전자상거래 벤처기업이 설립된다.

삼성전자는 뉴욕에서 미국과 일본, 독일 등 각국 12개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분을 공동 출자, B2B 전자상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벤처기업 (<http://ehitex.com>)을 설립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본금 1억달러 규모의 합작 인터넷 벤처기업은 조만간 데스크포스팀을 구성, 조직 구성 및 판매시스템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벌인다. B2B 판매를 전담할 이번 합작 인터넷 회사는 참여 업체들의 공동 출자 및 공동지분 소유 형태를 띠게 되며 반도체 및 가전, 컴퓨터, 네트워크, 전자 부품 등에 대해 3개월 안에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인터넷 벤처기업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첨단 기업들의 공급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 제품 납기와 서비스 제공속도도 단축시킬 것이라고 삼성전자는 말했다.

향후 2~3년내 B2B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전자 관련 제품의 규모가 6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번 합작 인터넷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시장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동 참여 12개업체는 이번 인터넷 전자상거래 제휴를 통해 각각 5~7% 가량의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작 인터넷 기업은 참여 업체가 아니더라도 가전업체 및 하청업체, 유통업자 등 전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주체들에게 새로운 전자 구매 및 판매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프로세스 효율성을 통해 제조 및 구매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온라인을 이용, 수요와 공급의 예측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 재고 수준을 적절히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CIH바이러스 피해 약 12억 집계

4월26일 퍼진 악성 CIH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약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에 따르면 CIH바이러스에 감염돼 피해를 입었다고 안철수연구소에 신고된 PC는 총 2천1백31대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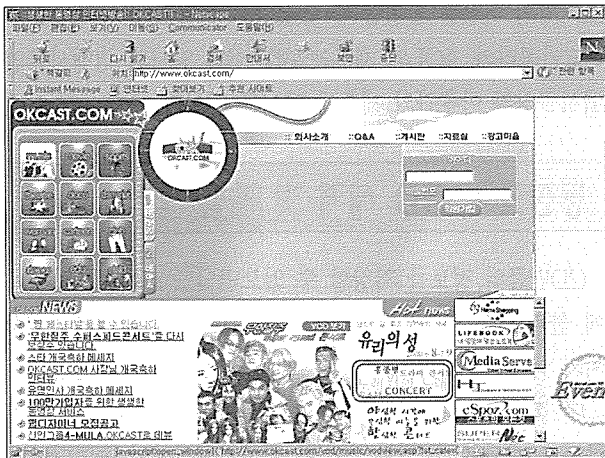
이들 피해 PC에 대한 하드디스크 복구 및 메인보드 교체 비용을 환산하면 약 3억8천만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안철수연구소 외에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은 한국정보보호센터와 하우리, 시만텍 등에 신고된 피해 PC를 합할 경우 국내에서의 총 피해규모는 약 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약 30억원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해 4월26일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나 아시아안티바이러스협회(AVAR)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서의 피해는 각각 10건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나라가 CIH 피해 규모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는 “단순히 복구비용만 계산할 경우 12억원의 피해액에 그치지만 이로 인한 업무중단이나 정신적 피해 등의 손실을 고려할 경우 피해규모는 환산하기 어려운 정도로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를 당한 PC는 단체 소속 1천20대, 개인용이 1천1백11대로 비슷하지만 단체의 경우 신고를 꺼리거나 소속단체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개인이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 단체 소속 PC의 피해대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단체의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가 64.7%로 가장 많았고 학교(15.4%), 공공기관(14.7%), 대기업(4.3%), 금융기관(0.9%)순으로 나타났다. 안철수연구소는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백신업체 등이 언론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서 CIH 대비에 관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면서 “이는 여전히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이라고 진단했다.

새 인터넷 방송국 5월 20일 개국



기존 지상파 방송의 동영상 수준을 자랑하는 인터넷 방송국이 개국했다.

미디어텍닷컴이 MBC 미디어텍과 함께 설립한 오케이캐스트닷컴(<http://www.okcast.com>)이 바로 그 주인공. 이미 4월 22일 시범 개국해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의 공식 인터넷 방송국으로 선보인 오케이캐스트닷컴은 국내에서 가장 빠른 회선환경이 장점. 2백여 전화국과 1백여개의 대규모 전용선 및 서버를 구축한 이른바 ‘슈퍼넷’ 망을 통해 앞선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다. 또한 다운로드 없이 클릭과 동시에 실행되는 동영상 화면, 1백만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전혀 끊임이 없는 풀스크린 화면을 볼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오케이캐스트닷컴은 종합 엔터테인먼트 방송사. 음악과 영화·드라마·댄스·스포츠·연극·다큐멘터리·여성·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는다. 자체 프로 제작을 활성화해

지상파 방송과 맞서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폐쇄회로 TV를 통해 주말극장 앞의 관객 동향을 생중계로 볼 수 있는 ‘주말극장가 생중계’, 영화 속 패션에 대한 분석을 해당 브랜드의 매장과 연결하는 ‘영화 속 패션 이야기’ 등이 이미 준비된 상태. 오케이캐스트닷컴은 개국을 기념해 제53회 칸영화제 소식을 현지에서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이밖에 개그맨 심현섭이 연출하는 사이버 영화 제작과 일본 메이저영화사와 합작영화 제작 등을 계획하고 있다.

컴퓨터 중시 교육 심신해져, 읽기-쓰기 회복운동 펼쳐

‘컴퓨터와 인터넷 같은 온라인 교육보다 쓰기·읽기 같은 전통적인 교육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중요하다.’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 때문에 전통적인 교육이 등한시되고 있지만 이런 기류는 10대들의 인격 성장과 신체 발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지는 ‘하이테크의 이단아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영리단체인 ‘현장 학습’이 펼치고 있는 ‘전통 교육의 중요성 알리기와 회복 운동’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미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관리 출신 윌리엄 루키서는 “컴퓨터 교육은 필요하다”면서도 “컴퓨터가 초등학교생들의 기초 교육인 수학·읽기·쓰기 분야에서까지 주요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런 방식의 교육은 스승과 제자의 인간적인 교류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활동이 가장 왕성할 시기에 아이들을 컴퓨터 앞에만 묶어둬 올바른 신체발육까지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특히 뭔가를 배우는 초기 단계에는 컴퓨터로 배우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써 가면서 이해하고 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육체적 활동이 아이들의 다양한 사고와 신경체계 개발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 이 단체는 “최근 2년사이 미국 각 주가 하이테크 교육에 쓴 돈은 총 67억달러(약 7조3천7백억원)에 이르지만 그 효과는 불분명하다”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고 좋은 교사를 충원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체국서 SW 판매



전국 2천8백여 우체국에서 우수 소프트웨어(SW)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콘텐츠 평가위원회에서 엄선한 교육, 사무, 게임, 개발 유틸리티, 콘텐츠 등 5개 분야 2백43개이며 분기별로 신규 SW와 콘텐츠가 추가된다. 우체국을 통해 SW를 구입하려면 우체국 통신판매를 이용하거나 전국 주요 우체국을 방문, 전시된 제품을 바로 구입할 수 있다. 또 6월부터는 우체국 전자상거래(<http://www.epost.go.kr>)를 이용해 SW를 구입한 후 온라인이나 신용카드로 금액을 결제하면 된다.

정통부 박승규우정국장은 “우수 SW를 저렴한 가격에 적극 보급해 고질적인 불법복제를 줄이고 우체국을 지역정보 화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 우체국에서 우수 SW를 판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코카콜라-AOL, 온·오프라인 제휴

코카콜라와 인터넷 서비스 회사인 아메리카온라인(AOL)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상대회사를 서로 홍보해주는 광범위한 판촉 제휴를 다년간 실시하기로 했다. 코카콜라는 AOL과의 제휴로 온라인 마케팅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으나 제휴의 자금 측면이나 기간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 제휴에 따라 코카콜라는 광고, 판촉물, 상품포장 등을 통해 AOL을 널리 알리는 대신 AOL은 넷스케이프, 컴퓨서브 등의 온라인 서비스에 코카콜라 상표를 표시하게 된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코카콜라가 AOL에 2천4백만달러를 주고 양사는 각자 내년부터 2년간 판촉지원을 위해 2천만달러를 사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코카콜라의 더글러스 대프트회장은 “코카콜라는 전 세계를 한꺼번에 기분 전환시킬 수 있고 AOL은 한꺼번에 전 세계와 접촉할 수 있다”며 “우리는 코카콜라의 상표 및 유통망을 AOL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코카콜라의 스코트 제이콥슨 대변인은 소비자들은 올 여름 새로운 영화나 음반 등의 형태로 제휴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양사 모두 재미를 추구하는 오락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제휴는 소비자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카콜라와 AOL의 제휴는 지난 3월 양사의 경쟁사들인 펍시콜라와 야후간의 제휴에 뒤이은 것이다.

동전크기 CD 세계 첫 개발

CD만큼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면서도 크기는 9분의 1에 불과한 동전 크기의 차세대 고밀도 고용량 기록재생장치가 국내 벤처기업에 의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

데이터저장장치 전문 벤처인 제논시는 디지털 정보를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는 초소형 핵심저장장치인 뉴미디어디스크(NMD)를 개발, 2002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주소 스캐너로 읽으면 홈페이지 연결

신문 지면에 게재된 특수 인터넷 주소를 연필 크기의 스캐너로 읽으면 해당 웹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이색 기술이 상용화됐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포스트 앤드 큐리어’(<http://www.charleston.net>)는 지난 5월1일자 지면부터 기사에 도메인 바코드를 게재하고 있다. ‘범용상품코드’(Universal Product Code)규격에 따라 만들어진 이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으면, 스캐너와 연결된 PC모니터에는 해당 웹사이트 화면이 뜬다. **④**